

현장시선



허영연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코로나19로 제주도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다. 어떠한 노력을 하려고 해도 금융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망연자실하는 안타까운 주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다. 엄격한 금융시스템 때문이다. 재산과 신용도에 의해 작동되는 금융시스템 하에서 일반 소상공인, 서민들은 높은 금융의 벽을 넘기가 어려워졌다. 힘든 시기일수록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처럼 문턱이 낮은 금융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라민은행은 1984년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돈을 빌

코로나19와 신용협동조합의 역할

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은행이다. 한국에서 이와 비슷한 대표적인 곳이 금융 혜택에서 소외된 제주도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다. 제주도내 신용협동조합은 1962년 아일랜드 태생인 패트릭 맥그린치 신부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신용협동조합은 '사람이 먼저'라는 인본정신을 바탕으로 믿음과 나눔을 통한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왔다. 또한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안정 지원 대출 등 7대 포용금융을 비롯해 서민과 소외계층 같은 세상의 약자를 돕고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축복장을 받기도 했다. 신용협동조합은 일반 은행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신용협동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은행의 주인은 주주이며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둘째, 은행은 주식의 양에 따라 표가 결정되지만, 신용협동조합은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로 민주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은행은 주주가 이익을 나눠 갖지만,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된다. 제주도내 신용협동조합은 2019년도 제주도민에게 출자금 등으로 80여억원의 환원했다. 제주도민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온 제주지역 신용협동조합에게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서민금융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비율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 관리하에 은행과 동일한 금융시스템을 적용받기 때문에 신용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리의 정책자금 또한 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시대에 엄격한 규제는 보수적인 대출 운영으로 이어지고 결국 많은 제주도민은 대출처를 찾지 못해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발을 들리게 되며 회생의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잘 아는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보완된 대출기준 제시와 연체대출금 일정 부분 지원 등이 이뤄진다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제주도민들의 어려움은 감소될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추구하며 경쟁이 아니라 협력, 이윤이 아니라 나눔을 추구하는 세상을 꿈꾼다. 신용협동조합이 최일선에 서서 소상공인 및 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정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향상되기를 바란다.

사설

직선제 아닌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켜야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던 1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4월 부터입니다. 당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5년도 안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불거진 겁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제주연구원 공동으로 지난 4일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제주도 분청 권한 집중과 행정시 민원 대응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제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진철 미래리서치 소장은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은 행정시장 임명제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행정체제는 분명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자마자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행정구역은 갑절로 커졌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은 아예 박탈됐으니 말입니다. '허수아비 시장'이란 편지가 달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권한 없는 행정시와 전락하면서 제주도 본청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정체제에서 시장을 직선으로 뽑는다고 나아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을 틀어쥔 도지사가 '몽니'를 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시장 직선제는 아예 안하더라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풀뿌리 자치로 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 논의해야 합니다.

감귤가격 비상... 비상품유통 총력 저지를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큰일입니다. 당초 여름 이후 중간상인들이 발매기 거래에 적극 나설 만큼 가격 강세를 점쳐지던 상황과 달리 정교한 농가가 더 늦기전에 가격 저지를 위한 모든 방안 마련에 총력 나서야겠습니다. 노지감귤 도매시장 평균 경락 가격(5kg 기준)은 9월 하순 1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높게 형성돼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10월 이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반등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7000원대를 웃돌던 가격이 하순에는 6000원대로 떨어졌고, 11월에 들어서면서 6000원선마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가격하락의 주 원인으로 코로나19 가격화로 인한 과일소비 둔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비상품 증가, 수입 과일 증가 등이 꼽힙니다. 핵심은 현 시점에 감

귤가격 반등을 유인할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격 형성의 외부요인인 소비둔화와 외국인 과일 증가 등의 시장상황은 차치해두고, 내부요인인 비상품 출하 저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대도시 경매법인 관계자들은 현재 출하중인 극조생 감귤의 낮은 품질 때문에 가격하락을 부채질한다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올해 비상품 감귤 단순실적은 현재 124건 14만129kg으로, 지난해 전체 224건 8만 2427kg에 비해 물량기준 70% 가량 많은 정도입니다. 그만큼 비상품 출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격 반등 대책은 당장 중요합니다. 행정 농협 농가가 단기에 올인할 수 있는 비상품 유통 저지에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가능한 인력을 총 동원해 감귤원 선과장 도매시장에 이르는 유통현장 곳곳마다 상시 점검에 나서서 강력한 대책을 벌여야 합니다.

열린마당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스포츠



김태민
서귀포시체육회장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 가정, 의료, 교육, 정치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됐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 또한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는 스포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20도요유평택이 내년으로 연기됐고 101회 전국체육대회, 49회 소년체육대회, 54회 제주도민체육대회 개최가 내년 순연 개최된다. 체육 시설 이용 또한 사전예약 및 시설별 인원제한을 준수해야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도민 체육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고 운동이 외부의 바이러스와 균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면역체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는 연구결과를 실생활에서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귀포시체육회도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수탁 체육시설물 이용객들이 비대면으로 발열검사를 할 수 있게 열화상카메라 2대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전화나 방문접수를 통해 이뤄지던 운영방법을 홈페이지에서 체육시설물 예약, 허가, 이용 등이 내년부터 원스톱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접수, 생활체육지도자 체육강좌 개설 요청도 전화, 방문접수에서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변화하는 스포츠의 주인공은 제주도민이며 모든 도민이 스포츠로 하나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응원한다.

뉴스-in

원희룡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 참여"

제주포럼 토크쇼서 밝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산편성 과정을 비롯 환경영향평가 등 제주도의 주요 사업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약속. 원 지사는 5일 제15회 제주포럼 첫날 진행된 'JDC 청년평화토크쇼' 축사를 통해 "지금과 같은 대전환, 대가속 시대에 청년은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 원 지사는 이어 "청년들이 더 큰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보다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과 참여의지를 길러야 한다"고勉. 오은지기자
고유정 전 남편 유족들 울분
○...대법원이 5일 고유정에 대해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하면서 의붓아들 친부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고씨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의 유족들도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

전 남편의 유족 측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반성조차 없는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무기징역은 한없이 가볍기만 하다"고 토로. 이어 "형벌의 최소한의 의미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이지만 무기징역은 이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질타. 이상민기자
김 시장 삼수 끝에 가파도로
○...김태업 서귀포시장의 가파도 방문이 코로나19와 태풍 '바비' 등의 이유로 두차례나 연기 끝에 어렵사리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현장 의견청취가 마침내 실현. 김 시장은 5일 오후 가파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보건진료소, 치안센터 등을 위문하고, 지역 내 주요 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의 시간을 마련. 김 시장은 주민들로 부터 가로 등 문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도서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삶을 위해 주민 건의사항을 보다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 현병준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경주김공 공수(향년 6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6일
부인 김규리
아들 김지훈
딸 김다혜 사위 김민철
다형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0년 11월 04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300,000,000원 중 금 1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20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발행주식수의 총수를 20,000주 하에 그 방법으로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금 18,0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까지 이의가 없으면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또한 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해당 주주들은 전원 당 회사의 본사로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06일
주식회사 한신건설
제주시 연복로 486, 3층 (아리암동)
대표이사 김완석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료 수년간 수확 퇴직후 심심마음 작물과 소풍
제주먹고사리뿌리와등글레뿌리
뒤편 전.밭.식재 관리 수확안내
15kg 1박스 [15평-20평식재]
1박스당 택배비포함 58,500원
심는방법·관리와 수확 상세 안내
상담전화 010-2691-9316 064)783-8987
농협계좌 901055-52-018318
제주야생농산물 품종연구센터 한기림농장 대표 이기승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100대'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 732-555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인동장씨 경순(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6일
아들 문계훈
딸 문영옥 사위 이상철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 망 이주복(1936. 03. 14생)
최후주소 : 제주시 연오로 61-2, 101동 506호(오라상동)
상기자는 2020년 7월 1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10월 28일 제주지방법원 2020년나10212호로 상속원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승계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연오로 61-2, 101동 506호(오라상동)
* 송달장소 : 제주시 구남로8길 17, 2층(이도이동)
송달명수인 김원식
2020년 11월 6일
공고인(상속원정승인자) 이 중 원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